

양성평등한 남녀공학교육을 위한 중등학교 교사 현장 연구 지원

수행과제명 : 남녀공학 중등학교에서의 성별 교육실태와 향후과제

과제책임자 : 정해숙 선임연구위원 Tel: 02-3156-7121, e-mail: hschung@kwidimail.re.kr

요 약

남녀공학이 양성평등한 교육의 장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교육 전문가인 교사들이 직접 남녀공학교육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진단하고 대안을 개발할 수 있는 현장연구의 기회를 제공하고, 연구비 및 경력점수 가산 등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임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 1999년 양성평등교육 실현을 명분으로 남녀공학 확대정책이 도입되었으나, 실제 현장에서 성 평등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나, 성 평등한 교육을 위한 조치는 거의 취해진 바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출산에 따른 학생인구의 감소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해 남녀공학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남녀공학이 양성평등교육의 장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 마련이 절실함
- 남녀공학에 관한 실증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들은 현 실태를 단적으로 보여줌. 남녀공학 중·고등학생 총 2,990명에게 설문한 결과, 주요 교과와 수행평가에 대한 태도에서 뚜렷한 성별 차이를 나타냈으며, 대학 진학 시 희망 계열에 있어서도 여학생은 인문계열, 남학생은 자연계열 희망률이

더 높게 나타나는 등 성 정형화된 모습을 보임. 학생들의 이러한 성차는 남녀공학에서는 다소 완화되었어야 하나 남녀별학생과 동일한 양상을 보여 남녀공학이 양성평등한 교육의 장으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남

- 또한 남녀공학교육이 학생들의 양성평등의식을 제고할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성차 및 성역할의식에 있어서 중·고등학교 모두 남녀공학생보다 별학생이 더 진보적이었고, 사회성의 경우도 학교유형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아서, 양성평등의식이나 사회성 발달과 같은 비학업적 요인들에서 남녀공학 교육효과의 실체는 확인되지 않음

- 한편, 중등학교 현직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집담회(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서도 남녀공학교육의 현실을 확인할 수 있음. 교사들은 학생 성별에 따라 수업태도와 선호교과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수업과 훈육방식이 달라져야 하고, 수행평가를 비롯한 내신에서 여학생들이 평균적으로 더 우수한 현상이 남학생의 남녀공학 기피 현상으로 이어진다는 점 등 여러모로 공통된 현실 인식을 가지고 있음. 또한 교사들은 이성교제 및 학교폭력 등에 있어서 남녀공학의 차별적 특성 등,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남녀공학교육을 진단하고 있음에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적절한 교육적 개입을 모색하는 단계에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 학교 교육현장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대부분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이러한 차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교육방법과 지침을 마련할 수 있을 때만이 성 평등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사회의 성 고정관념을 제거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됨. 따라서 남녀공학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교육적 개입을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교사가 직접 자신이 부딪히고 있는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진단하고 대안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이 마련되어야 함. 이와 같은 기회의 제공은 궁극적으로 남녀공학을 양성평등한 교육의 장으로 만드는데 효과적인 정책 전략이 될 것임

2. 정책의 추진방향

- 교사가 주체가 되는 현장연구의 필요성 강조 및 연구 여건의 조성
 - 학교가 양성평등한 교육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학생을 교육하는 교사가 교육현장에서 드러나는 젠더 문제를 인식하고 양성평등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여야 함. 교사들이 주체가 되어 수행하는 현장연구의 필요성은 이러한 맥락에서 제기됨. 현장연구는 다양한 남녀공학교육 현장의 이슈들을 다룰 수 있으며, 설득력 있는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 및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현장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연구 여건을 조성하여야 함

- 교사 연구비 지원 및 경력점수 가산을 통한 현장연구의 활성화
 - 교사 현장연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련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의 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함. 현실적으로 교사가 수업을 비롯한 기존 업무에 추가하여 연구를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체계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임. 구체적으로 남녀공학교육에 대한 현장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교사들에게 연구비를 지원하고, 경력점수에 가산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연구에 도전하는 교사들의 노력을 독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함

- 연구 성과 공유 및 정책 반영을 통한 남녀공학교육의 실질적 개선 유도
 - 남녀공학교육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교사 현장연구의 성과를 널리 확산하여 공유하고, 연구에서 도출된 의미 있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함. 따라서 현장연구가 문서상의 작업만이 아니라 활용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널리 알리고, 연구를 수행하는 교사를 비롯하여 연구를 주관하는 관련 부처, 그리고 연

구 성과를 공유하는 모든 집단이 이 점을 숙지하여 현장연구의 성과가 남녀공학교육의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준비하여야 함

3. 정책효과

□ 남녀공학교육의 양성평등성 제고

- 남녀공학이 양성평등 한 교육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성 정형화된 행동이나 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교육적 개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교육 전문가인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부딪히는 학생들의 성별 차이를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한 지침 등의 방안을 개발·적용함으로써 남녀공학 교육이 양성평등 교육을 위한 장으로서의 기능을 제고하게 될 것임

□ 교육계 내부에서 양성평등 교육을 위한 자발적인 추진 동력 마련

- 현재 교육계에서 양성평등은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교육을 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미 실현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그러나 단순히 남녀 간 교육연한의 차이가 없다는 것만으로 평등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 교사 현장연구의 실시는 양성평등 교육의 현 실태를 진단하고, 관련 정책의 진행에 있어서 교육계의 자발적인 추진 동력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임

□ 현장에 기반한 남녀공학교육 관련 자료의 확보

- 남녀공학교육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정책연구의 형태가 대부분이고, 교육전수통계나 학업성취도평가 통계와 같이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들이 있기는 하지만 남녀공학교육에 관한 주제를 충분히 다루고 있지는 못함. 현장연구는 남녀공학교육의 실재를 잘 파악하고 있는 교사들이 현실에서 감지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단위 학교를 기반으로 하여

수행하게 되므로 구체성을 충족하는 양질의 자료를 생산할 가능성이 높음. 또한 연구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해석과 담론들은 남녀공학교육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양성평등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유용한 근거가 될 것임

-
- ▶ 주관부처 :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중등교육정책과 등
 - ▶ 관계부처 : 여성부 등
-